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돗물 유충 사태

송수관 최초 파열 때 이물질 제거 않고 파손 부위만 보수
제거 못한 이물질 정밀여과장치로 유입돼 1월말 가동 중단
수리 미룬채 책임 공방… 道 "겨울철 유충 없을 것이라 생각"

지난해 10월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정밀여과장치가 최소 한달 전부터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리를 미룬채 정밀여과장치가 없는 우회관로를 통해 서귀포시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직경 500㎜의 대형 송수관이 파손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유량계 수위가 계속 떨어지자 송수관에서 물이 샌다고 판단했다. 강정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은 이 파손된 송수관을 거쳐 용흥가압장으로 보내진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날 송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파손 부위만 긴급 보수했다.

'이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토 작업이란 송수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한다. 송수관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깨진 부위로 주변의 흙이나 자갈 등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송수관 파손 구간에서부터 용흥가압장 정밀여과장치로 이어지는 구간엔 이토 작업에 필요한 '이토 밸브'(송수관 안 토사를 배출하는 장치)가 없어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했다. 용흥가압장 정밀여과장치는 지난해 10월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은 제주도가 재발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 23일 설치한 것으로, 수돗물을 각 가정에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물질을 걸러내는 최후의 보루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송수관 파손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용흥가압장 정밀여과장치를 시설할 때부터 송수관로 끝단에 이토 밸브를 하나 더 설치했더라면 유충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는 용흥가압장 정밀여과장치 고장으로 이어졌다. 도 상하도본부에 따르면 송수관을 보수한 이튿날부터 정밀여과장치 내부 압력이 3배가량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송수관 파손 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이 결국 정밀여과장치로 흘러 들어가 거름막을 막으면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대처도 문제다. 도 상하도본부는 1월 26일 설치 업체와 함께 정밀여과장치가 고장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한달 간 방치했다.

대신 정밀여과장치 가동을 멈춘 채 정밀여과장치가 없는 우회관로를 통해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공급했고, 결국 한달 뒤인 올해 2월 25일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 수돗물에서 또다시 유충이 발견됐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뒤늦게 정밀여과장치 수리에 나섰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진 뒤였다.

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정밀여과장치 고장 책임 소재부터 가리고 나서 수리할 계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수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밀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회관로로 수돗물을 공급하면 가정으로 유충이 유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겨울철에는 유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정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2만5000t으로, 서귀포시 동 지역 주민 3만1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비가 와도 멈출 수 없는 낚시 열정 비 내리는 4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 낚시꾼들이 우비를 입고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상반기 첫 운영

하반기 성산 1곳 추가 개소
초등생 자녀 긴급돌봄 도움

서귀포시가 올 상반기 긴급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또 2023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가칭)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인 구도원(대표 김경애)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내 공무원연금공단과 10년 무상임대협약을 맺고 수탁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7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과 기자재 준비를 3~4월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 동부지역인 성산읍 소재 성산서부교회에 서귀포시 2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어 2022년 토산2리 마을과 2023년 혁신도시 내 꿈자람센터 등에 3호·4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정원은 20명으로 정기돌봄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일시돌봄도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오후 2~7시)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다만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의 27개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월 최대 10만원의 이용료가 적용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맞벌이부부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센터 개소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말산업 기반 확대·특화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 15개 사업 34억원 투입

말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34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말산업 기반 확대 및 특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5개 사업에 예산 34억4200만원(국비 8억7000만원·지방비 11억7200만원·자부담 14억원)을 투입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보한 16억3300만원을 말 사육 농가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국비 지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및 승용마 조련 강화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14억96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순수 지방비 사업 명목으로 확보한 3억1300만원으로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등의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시만의 특색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경주마 경매용 X-ray 진단비 사업에 1억원,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 및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말 사육 농가 소득 증대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말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된다

제주시, 지난달 타당성 용역 착수 10월 완료
오는 2025년까지 252.5ha 면적에 51억원 투입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 일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산138번지 노꼬메오름 일대 252.5ha(도유지 80ha, 산림청 국유지 172.5ha) 면적에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가칭)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해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서부지역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51억5000만원(국비 25억원·지방비 26억5000만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숲속의 집), 캠핑장·전망대 등 편의시설, 산책로·세미나실 등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이어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12월쯤 제주도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이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전국 휴양림은 174개소(국립 43, 지자체 108, 개인 23개소)로 제주는 4곳(교래·붉은오름·서귀포·절물)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휴양림은 대부분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산림휴양문화 향유와 산림서비스 제공에 지역적 한계와 접근성 불편 등을 초래해왔다. 서부지역 산림휴양림 조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림휴양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균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시 공원녹지과 한정우 과장은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자연휴양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추자 정기여객선 '임시휴항' 대체 화물선으로 생필품 수송

완도↔추자↔제주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 송림블루오션호가 정기검사로 인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간 임시휴항에 들어가면서 생필품 운송 등을 위해 대체 화물선이 투입된다.

제주시 추자면(면장 김진성)은 정기여객선 임시휴항으로 도서지역 주민 생필품 운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에서 해운회사를 통해 대체 화물선을 임차 운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체 화물선은(438t)은 임시휴항 14일간 격일(3·5·7·9·11·13일)로 하루 1회씩 왕복운항을 할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학교 수업대신 제주직업전문학원으로 출석해도 졸업인정!!
무료 2021학년도 일반고 3학년대상 고교위탁 신입생 모집
[일반고특화] 바리스타&베이커리실무 및 자격취득 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약 10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과정입니다.

□ 위탁반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일반고 고3 예정 학생
□ 대상학교 : 제주도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 일반학과
□ 모집과정 및 인원 : 바리스타&베이커리 실무 및 자격 취득 과정 / 20명
□ 위탁반 신청 방법 : 각 학교 진로진학부 또는 담임 교사와 상담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0일 ~ 2021년 3월 21일 (인원초과시 조기 마감)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12월 예정 (1,224시간)
□ 교육시간 : 주중 월~금 9:00 – 17:00 (예정,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매월 셋째주 월요일은 원적교 등교
□ 교육특전
1. 교육비, 교재비 전액 국비지원(100%)
2. 훈련 장려금 및 교통비 지급
3. 체계적인 자격시험 대비 교육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4. 산업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으로 완벽한 취업 준비
5. 취업상담 및 지원
□ 교육강점
1. 다년간 운영 경험으로 교육행정 편리성 보장
2. 철저한 학생관리를 통한 복교율 최소화
3. 전문상담사에 의한 학생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체계적인 상담 가능
□ 지원문의 : 064) 725-5545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 대상 봄맞이 특가할인!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BTHBA 히트브랜드대상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